

“우리동네 시의원 이름 아는 사람” 4%

광주시의회 개원 22주년 면접조사

“자신 지역구 구청장 이름 안다” 24%

광주시민 대부분이 자신들의 지역구 시의원의 이름을 모르고 있는 데다 시의회 역할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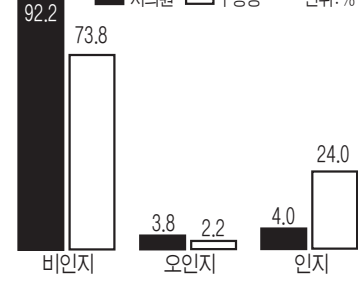
전남대 심리학과 박선희 교수는 광주시의회에 대해 최근 18세 이상 광주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한 결과 4.0%만이 지역구 시의원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을 뿐 96.0%는 아예 모르거나 (92.2%) 잘못 알고 있는(3.8%)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지역구 구청

장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응답자는 24%였다.

시의회 역할에 대한 인식수준도 낮았다.

응답자의 13.6%만이 시의회 역할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답했고, 46.2%가 시의회 역할에 대해 ‘잘 모른다’라고 답했다. 특히 시민 10명 중 7명 이상인 73.2%가 ‘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이 없다’라고 응답했고, ‘관심이 있다’라는 답변은 26.4%에 그쳤다.

■ 시의원·구청장 인지도



시민과 시의원들 간 역할 인식 차이는 큰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시의회에서 비중을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 시민 41.4%는 ‘시의원 본인의 정치활동’이라고 답한 반면, 시의원 87.0%는 ‘자치단체장(시장) 및 행정기관에 대한 견

제와 감시’라고 답했다.

이는 시민들이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단지 본인의 정치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시의원들 대부분은 행정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의정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민 36.0%는 시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활동을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고, 30.0%는 ‘잘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또한, 광주시의회가 광주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시민 36.4%가 ‘못하고 있다’라고 답했고, 27.4%는 ‘잘하고 있다’라고

응답했다.

박 교수는 이처럼 시의회의 역할 및 의원들의 인지도가 시민들에게 낮은 원인을 정당과 시민단체 등에 밀리고 있는 시의회의 의제 주도력 부족과 시의회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부족을 꼽았다.

박 교수는 “시의회 역할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의원들 개인의 홍보보다는 전체 의회 차원의 홍보 및 정보제공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의정활동에서 집단 기능이 약화돼 주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시의원들의 역할 인식에 대한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수능서 국사 선택 줄어... 역사교육 강화를”

작년 수능 응시 비율 광주 8.7%, 전남 6.7%

윤관석 민주당 의원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7일 대학 수능능력시험 응시자 가운데 국사 응시 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수능에서 국사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전환해 역사교육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사 응시 비율이 2009학년도 10.5%, 2010학년도 10.9%, 2011학년도 9.5%, 2012학년도 6.7%, 2013학년도 7.1%로 해가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수능 응시자 가운데 한국근현대사 응시 비율 역시 2009학년도 33.3%, 2010학년도 35.1%, 2011학년도

34%, 2012학년도 25.8%, 2013학년도 25.5%로 감소 추이를 보였다.

2013학년도 기준 지역별 전체 수능응시자 대비 국사 응시비율은 서울 9.0%, 광주 8.7%, 전북 7.6%, 전남·경기·충북 6.7%, 부산·대전·경북 6.5%, 대구·경남 5.5%, 울산 5.2% 등이었고, 한국근현대사 응시비율은 세종 40.6%, 대구 29.4%, 전남 29%, 광주 28.5%, 울산 22.6%, 강원 21.2% 등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2005년 국사가 선택과목이 되면서 역사교육이 약화된 사이 주변국의 역사왜곡이 도를 넘고 있다”며 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탄소은행제 참여 광주 30만명 넘어 가입률 전국 1위

광주시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도입한 탄소은행제에 참여한 가구 수가 6월 현재 30만명을 넘어섰다”고 7일 밝혔다.

탄소은행제는 전기, 가스, 상수도 사용량을 줄이는 만큼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광주 가구 수의 56%인 30만3155가구가 가입했다. 이는 전국 1위의 가입률이다. 자치구별로는 북구 9만7980가구, 광산구 6만9935가구, 서구 6만4502가구, 남구 4만6950가구, 동구 2만3788가구다.

광주시는 30만 돌파 기념으로 오는 10일부터 8월 18일까지 광주은행 ‘그린카드’로 결제 시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탄소은행제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탄소포인트제 누리집(www.cpoint.or.kr)에 가입하거나 가까운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박진표기자 lucky@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오른쪽)과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7일 오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16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열린 개성공단 실무회담 종료회의에서 합의를 교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 ‘쉬운 것부터’ 양측 요구 절충

■ 개성공단 재가동 원칙 합의 배경

남북 양측은 무박 2일로 치러진 실무회담을 통해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향한 첫걸음을 뒀다.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제한과 공단 폐쇄 등의 조치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지 않던 원칙적으로 공단 재가동이라는 목표를 명시한 것이다.

이런 합의는 남북 양측의 요구를 절충한 주고받기 식 협의의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회담에서 북측은 기업의 설비 점검과 소속원 원상복구를, 남측은

완제품 및 원부자재의 반출을 강하게 요구했다. 따라서 양측이 서로 강하게 요구한 내용을 절충해 합의문에 담은 셈이다.

이런 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남북 양측 모두 처한 환경이 그리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측에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의 대책이 미흡적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여기에서 최근 2007년 남북정상회

담 대화록 공개로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비판 여론도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측은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하기는 했지만, 남측의 체류인원 전 원 철수 결정을 예상치 못했다가 허를 찔린 상황에서 조기 재가동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개성공단에서 일해온 5만여 명의 근로자가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 되면 서 재정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남측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 중국과 미국 등이 6자회담뿐 아니라 북한과 양자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는 남북관계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북한이 적극적으로 회담에 나서게 한 요인의 하나로 꼽힌다.

이런 배경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기는 했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도 작지 않다.

이번 회담에서는 재발방지와 관련된 10일 개성공단에서 후속회담을 개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단 이번 회담에서 남측이 강력히 요구한 재발방지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회담에서 본격적으로 이뤄놓을 셈이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어떤 형태로, 무슨 내용을 담을 것인지를 놓고 지루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도 있다.

/연합뉴스

지방정가

전남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 윤도현 의원

전남도의회(의장 김재무) 제9대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윤도현(강진·민주당·사진) 의원이 선출됐다.

전남도의회 예결특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윤도현, 부위원장에 이광림(여수·민주)의원을 선출했다.

신임 윤 위원장은 초대 강진군의원, 평화통일 자문위원 강진군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민주당 강진지구 부위원장, 남도생협 이사장, 도강요 대표를 맡고 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



속으로 도의회 연구단체인 문화관광정책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7일 “도민의 여론을 잘 수렴해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살리기, 도민 복지증진, 전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박삼용 ‘항릉강 수변공원 조성’ 제안

광주 광산구의회 박삼용 의원(송정·도산·동구 선거구)이 지난 5일 광산구의회 정례회 분회의 구성의결을 통해 송정역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항릉강 수변공원 조성’과 체육시설 확충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또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연계한 여세권 개발’과 관련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534억원을 투자하는 송정역 사건립 사업비가 확보된 만큼 꼭



민간 투자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주변 상권과 총동원할 수 있는 여세권 개발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영세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에 보다 더 많은 지원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삼희 공인중개사

모든 부동산 급매매

급매처분상담

법인소유물건

지분소유물건

미준공건물

경매중인물건

복잡한 권리관계에 있는 부동산을 말소와 동시에 일괄매입

매수자 상담환영

법률/금융상담 동구 불로동(구)그랜드호텔 3층
(062) 234-1199 010-8730-3340
신뢰할 안내자를 만나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태영부동산컨설팅사무소

★매매★

- 남구 방림동 순환도로점 지하1층 지상6층 대지344㎡ 건평 1576㎡ 매매가11억1천원(병영직할)
- 동구 용산동 도시철도공사 뒤편 임야 32.231㎡ 매매가 ㎡ 당 4천5백원
- 북구 오치동 먹자골목내 원룸촌 내지 407㎡ 3억 2천만원 (상가주택, 원룸신축직할)
- 화순읍 훈리 공인빌라 4층 132㎡ 매매가 1억5천만원
- 백운동 서강중 인근 2층상가주택 대지137㎡ 1층점포3칸 2층주택 임대중 매매가1억7천만원
- 문흥지구 현대아파트 후문 맞은편 지상3층 상가주택 대지 249㎡ 건물474㎡ 1층점포3곳임 대 2.3층 주택4곳임대 (용8천 전1억2천만원) 매매가1억7천만원

★임대★

- 동구 운림동 중심사 버스종점 아랫도어 매장 뒤편 2층 레스토랑 198㎡ 룸완비 보증금3천 만원 월70만원 시비권있음
- 문흥지구 1층 교차구이 50㎡ 먹자골목내 중심상권 현 상업중 보1천만원 월1백만원 비권있음
- 남구 봉선동 삼익사거리 인근 2층 노래방225㎡ 룸6개(룸 현상업중 보2천만원 월1백70만원) 시비권있음
- 북구 오치동 먹자골목 입구 지하 노래하는 호프 7080 현상업중 132㎡ 보증금1천만원 월80 만원 시비권있음
- 서구 벽진동 순환도로 서광주역 진입 도로점 대지1270㎡ 건평 198㎡ 보5천만원 월200만원 시비권없음 (식당직할, 모든업종가)

부동산 매도,매수 물건 성실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법원경매 물건 상담전문

상담 번호 010-6636-0114
010-3627-3896

영천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임대·급매매

웨딩홀 상설뷔페
임대 2,824㎡ (854평)
주차 500대
보2억 / 월1,500만
매매가15억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임대 2,479㎡ (750평)
주차 500대
보2억/월1,200만
매매가10억

급매인수 11억
건물5,700㎡ (1,740평)
보증금4억 /월2,700만
감정가 78억
급매가 25억
용자역 14억

☎010-3605-7814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동원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전문)

상가건물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7층) 보5억4천.월3500만 매46억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3층) 보3억원. 월1200만원 매24억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10층) 보25억. 월 6500만원 매130억원
- 광산구 수원지구(5층) 보2억천. 월1390만 매27억원
- 광산구 신항동(5층) 보2억.월1040만 매19억원

대지/답

- 금호동 계획도로점 자연녹지 3,400㎡ 매32억원 (병원, 차고지, 대형가든, 정려, 예식장, 투지회적)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960㎡ 매 36억원(병원,사옥)
- 치평동 광송간도로 395㎡ 매14억원(병원,사옥,전시장)
- 쌍촌동 운천역부근 상업지 845㎡ 매가25억 (사옥,전시장,병원,도시형)
- 상가건물, 내대지 급구·

010-3753-0033

공장매매

장흥군 장평면 장평농공단지내

【 토 지 】
4,864㎡
【 공 장 】
375㎡
【 사무동 】
161㎡
기계장치 포함

【 용 도 】
특수시멘트 (몰탈 등)제조공장

매매가액 3억원

조성중인 장흥농공단지 토지분양가 평당 239천원

017-602-1948